

# 개인도 기업도 못 버텼다... 광주·전남 파산신청 급증

## 법원통계월보, 3개월 사이 574건 접수...증가세 지속 소비 위축·기업 경기 부진 등 겹쳐 지역 경제 '경고등'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 최근 광주·전남권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한 뒤 5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올해 2월 134건에서 3월 184건, 4월 213건으로 증가했다. 2월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5월에는 177건으

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광주회생법원의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월 5건, 3월 12건, 4월 5건, 5월 7건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광주회생법원 관할에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북, 제주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어 해당 수치를 광주·전남만의 통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 경기 흐름과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개인파산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파산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로 꼽힌다. 경기가 악화됐다고 즉각 파산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에 대충돌며 버티다가 상황 능력을 잃었을 때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청 증가세를 코로나 19 이후 누적된 경제적 부담이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엔데믹 이후에도 기대 만큼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상황 여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내수 경기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음식점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소비 회복은 더디면서 사업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전남의 산업 구조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제조업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소비 위축이 곧바로 지역 상권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계 채무 악화로 연결되

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 증가와 폐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 침체도 지역경제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시장 위축과 공사 물량 감소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협력업체와 소규모 사업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관련 업종의 부진이 소비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은 가계의 위기를, 법인파산은 기업 부문의 위기를 의미한다. 두 지표가 함께 상승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는 국면에서 주로 나

타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경제계가 이번 통계를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 저하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광주지역 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수년 동안 대출로 버티다 결국 상황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관련 신청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파산 증가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SW미래채움센터에서 지역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강사 멘토링 문화를 주도할 '2026년 SW미래채움 수석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 GICON, 광주SW미래채움 수석 강사 위촉

### 전문성 강화·교육 격차 해소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SW미래채움센터에서 지역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강사 멘토링 문화를 주도할 '2026년 SW미래채움 수석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SW미래채움 공유·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센터별로 수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동료 강사들의 멘토링을 주도할 리더를 발굴해 궁극적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의 SW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광주 지역 수석 강사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광주SW미래채움 1기 출신이자 수업과정을 공모전 수상 이력을 가진 윤찬영 강사가 최종 선발됐다.

윤찬영 수석 강사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

된 이후 SW미래채움(광주) 사업을 통해 다시 사회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수석 강사로 선발됐다.

이날 위촉된 윤 수석 강사는 앞으로 수업과정을 공모전 참여 강사 지원 강사연구회 대상 수업 노하우 전담 연구 진행, 강사 연구회 개발 콘텐츠 심사 진행 등 핵심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SW 미래채움(광주)' 사업은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의 SW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은지 기자

## 광주 AI 거점에 '호반써밋 첨단3지구' 분양

### 분양가상한제 적용 805가구...반도체 호남 투자설에 수혜 기대

호반건설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주목받는 '호반써밋 첨단3지구' 견본주택을 12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되는 첨단3지구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을 품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첨단3지구는 유력한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중심에 AI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GIST 부설 AI양재고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역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아울러 올 10월에는 첨단3지구 내 3개 단지 총 3949 가구의 첫 입주도 예정돼 있어 산업과 연구개발·주거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 모습도 구체화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첨단3지구가 주목받고 있다"며 "'호반써밋 첨단3지구' 청약에도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마곡동 일원에 마련된다.

정현아 기자 aura@

호반써밋 첨단3지구는 광주시 첨단3지구 A7·A8블록에 총 8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A7블록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에 전용 84㎡ 단일면적 356가구로 구성된다. A8블록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에 전용 117~135㎡ 449가구로 공급된다. 공공택지지구 내 공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1500만원대다.

청약 일정은 15일 A8블록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특별공급,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순이다. 당첨자 발표는 A8블록 24일, A7블록 25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6~8일 진행된다.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광주시 및 전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블록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 박셀바이오, 항체신약 기술 시장 공략

### 16~18일 중국 CPHI 참가...기술 소개·파트너십 확대 추진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박셀바이오가 아시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해 항체 기반 신약개발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확대에 나선다.

박셀바이오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CPHI China 2026에 참가해 항체 기반 신약개발 기술과 의약품 제제 기술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CPHI China는 전 세계 120여개국의 제

약·바이오 기업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산업 전시회다. 박셀바이오는 KOTRA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해 신약 개발 이중항체와 항단백질 치료용 개량항체제제, 의약품 제제 및 개량신약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발굴하며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송대우 기자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규 개량 이중항체는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는 항체로, 항체 절편을 활용해 기존 항체보다 크기를 줄이고 암 조직 침투율과 표적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항단백질 치료용 개량항체제제 주목받고 있다. 이 치료제는 기존 연구 내 직접 주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해 점안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나노바디 기반 의약품에 약물전달시스템(DDS)과 AI 기반 구조·효능 최적화 기술을 접목해 약물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의 치료 편의성과 순응도 향상은 물론 연구 내 침투율 개선을 통해 차세대 항단백질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THE 29TH MU-AN LOTUS FESTIVAL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

무안 SUM: ON

6.26.금-6.28.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